

2004년도 시가문학 분야 연구 동향

정한기(상명대)

1. 머리말
2. 장르별 연구 동향
 - 2.1. 고대가요·향가
 - 2.2. 고려가요
 - 2.3. 약장
 - 2.4. 시조·사설시조
 - 2.5. 가사
 - 2.6. 고전시가 일반론·기타
3. 맺음말

1. 머리말

본고는 2004년도 고전시가 연구 동향을 정리하여 한 해 동안의 주된 연구 관심과 연구사적 진전을 가늠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04년 1월에서 2004년 12월까지 발표된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을 주 대상으로 한다.¹⁾ 이 논문들을 대상으로 하여 고전시가의 개별 장르별 연구를 정리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정리에서 본고는 각 논문의 의미를 드러내는 데에 중점을 두어 서술하고, 맺음말 부분에서 전체적인 연구 동향을 통해 느낀 점을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언(提言)하고자 한다.

2004년 한 해 동안 발표된 논저 가운데 학계의 주요한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1) 2004년에 간행된 단행본은 2004년 이전에 발표된 논문을 모아 간행한 것이거나 박사학위 논문을 간행한 것이 대부분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2004년 연구 성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문헌에 그 목록만 제시한다.

하고 수집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정리 과정에서 논문의 의미를 충실히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비판적인 주관이 개입된 부분이나, 논지를 잘못 파악한 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

2. 장르별 연구 동향

2.1. 고대가요 · 향가

고대가요에 대한 연구로는 <공무도하가>를 대상으로 그 작자를 새롭게 고찰한 김성기²⁾의 논의가 있다. 김성기는 <공무도하가>가 급박한 남편의 죽음 앞에서 공후를 들고 다니며 남편을 뒤따르던 백수광부의 아내가 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한 다음, “곽리자고의 아내인 여옥이 공후로 그 소리를 베꼈다(寫其鬢).”라는 구절에서 “其는 곽리자고이고 여옥은 여기에 음곡을 붙였다.”라고 해석하여 <공무도하가>의 작자를 곽리자고(霍里子高)로 보았다. 이 연구는 허구성이 짙은 배경 설화를 사실로 받아들인 점이 특이하나, 작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논증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향가에 대한 연구는 향가의 내용(및 주제)에 대한 논의, 향가의 창작 배경에 대한 논의, 향가의 형식에 대한 논의, 향가의 해독에 대한 논의 등이 있다.

향가의 내용 및 주제에 대한 논의는 신재홍,³⁾ 성호경⁴⁾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신재홍은 <서동요> · <헌화가> · <처용가>를 대상으로 내용을 분석하여 각각의 작품에 나타난 사랑을 “사랑의 계략과 성숙의 의미”, “사랑스런 감정과 근접성”, “사랑의 쟁취와 외부의 시선” 등으로 보았다. 향가의 주술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 경향을 반성하여 향가의 서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려

2) 김성기, 「공후인의 작가에 대한 연구」, 『고시가연구』 13, 한국고시기문학회, 2004.

3) 신재홍, 「향가의 사랑 주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4) 성호경, 「<찬기파랑가>의 시세계」, 『국어국문학』 136, 국어국문학회, 2004.

한 것으로 보인다. 성호경은 <찬기파랑가>의 시상 분석을 통하여 핵심 주제를 살폈다. 작품의 시상을 분석하여 “시상이 펼쳐질 조건 →부차적 주제의 제시 → 앞의 것을 종합한 핵심 주제의 제시”로 전개된 점을 밝혔고, 이를 토대로 <찬기파랑가>는 “기파랑의 인품에 대한 찬양과 그 인품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핵심 주제인 것으로 보았다.

향가의 창작 배경에 대한 논의는 신재홍,⁵⁾ 박인희⁶⁾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신재홍은 <혜성가> · <도솔가> · <안민가> · <원가>의 창작 배경을 살폈다. <혜성가>는 진평왕대의 정치 · 행정 · 군사 제도의 개혁과 외적 방어를 위한 축성 사업 등을 행한 역사적 사건이 반영된 작품으로, <도솔가>는 친당 정책을 추진한 경덕왕이 태자 책봉과 같은 중대한 일을 앞두고 일어난 천체의 이변을 제거하기 위한 의식을 거행할 때 부른 작품으로, <안민가>는 김사인 · 이순 등의 극론(極論)을 가납(加納)하였던 경덕왕이 충담사에게서 정치 이념을 듣고자 한 작품으로, <원가>는 성덕왕 때 친당 정책을 보좌하였던 신충이 효성왕 즉위 시 모종의 정치 세력 간의 갈등 속에 잠시 소외된 상황에서 지은 작품으로 보았다. 박인희는 <처용랑망해사(處容郎望海寺)>조가 『삼국유사』 기이편에 수록된 점에 주목하여 기이편이 국가 · 신라 국왕과 관련된 편목이라는 점을 근거로 <처용가>는 왕위 계승이 그 창작 배경이 된다고 보았다. 이들 논의는 향가의 창작 배경을 당대의 정치 현실에 둔 점이 공통적이다.

향가의 형식에 대한 논의는 박재민,⁷⁾ 양희철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박재민은 8구체인 <모죽지랑가>에 대해 ‘去隱’이란 어휘가 어말어미로 사용된 경우가 많은 점, 행같이 된 여백에 구절들을 보입시키면 9행 첫머리에 감탄구(郎也)가 오는 점, 10구체 향가의 전형적인 모습인 의미상 3단으로 구성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10구체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양희철은 10구체 향가에 있는 감탄어구를 아야(阿也)류 · 탄왈(歎曰)류 · 낙구(落句)류

5) 신재홍, 「<혜성가>의 역사적 배경」, 『한국시가연구』 16, 한국시가학회, 2004; 신재홍, 「향가에 나타난 정치의 이념과 현실」, 『고전문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6) 박인희, 「處容의 실체와 <처용가(處容歌)>」, 『어문연구』 12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7) 박재민, 「<모죽지랑가>의 10구체 가능성에 대하여」, 『한국시가연구』 16, 한국시가학회, 2004.

8) 양희철, 「향가 10구체설의 논거」, 『한국시가연구』 16, 한국시가학회, 2004.

로 분류한 다음, 탄왈류는 가슴을 칠 때 나는 소리(打心), 병으로 신음할 때 나는 소리(病吟) 등을 들어 감탄사로 처리하였고, 낙구(落句류는 아아(阿也)류 표기와 위치가 같은 점을 들어 감탄사로 처리하였다. 10구체 향가의 감탄어구를 해명하려 한 점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감탄어구임을 밝히는 기준이 주관적인 견해에 치중한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향가의 해독에 대한 논의는 민찬⁹⁾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민찬은 서동설화에서 <서동요>와 관련된 동요지험(童謠之驗)이란 구절과 서동설화와 <내복에 산다>형 설화가 서로 비슷한 점에 착안하여 <서동요>는 신라의 신화공주가 복을 가지고 백제의 서동에게 온다는 의미를 띠는 것으로, 경쟁국 신라의 국운을 제압하고자 하는 백제인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들에 의하여 불렸을, 정치적 색채가 짙은 노래로 보았다. 이러한 작품 해석을 토대로 <서동요>에서 “卵乙” 또는 “卵乙”로 해석되는 부분을 복을 의미하는 卵乙로 확정지었다.

그 외 화랑도의 행적을 산신제의로 본 논의들¹⁰⁾과 향가에 나타난 시간의식을 살펴본 논의¹¹⁾가 있다. 화랑도의 행적을 산신제의로 본 논의들에서는 화랑도의 근원 사상을 풍류도로 전제한 다음, 화랑의 상마도의(相磨道義)는 개인적 인격도야와 집단적인 조직생활의 훈련을, 상열가악(相說歌樂)은 제천의식에 필요한 음악의 연습을, 유오산수(遊娛山水)는 산천신에 대한 제사를 목적으로 본 점이 공통적이다.

2.2. 고려가요

고려가요에 대한 연구로는 고려속요 개별 작품에 대한 해석, 고려속요의 궁중 수용에 대한 논의, 고려 궁중에 사용된 국어시가와 한자시가의 관계에 대한 논의 등이 있다.

고려속요 개별 작품에 대한 해석에는 이연숙의 <정읍사>에 대한 해석,¹²⁾

9) 민찬, 「서동요 해독 및 해석의 관점」, 『한국문화』 33,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4.

10) 홍비연, 「삼국유사 기이편의 신화 및 향가 연구」, 상명대 박사학위논문, 2004; 김정오, 「향가에 표출된 화랑도의 사유세계」,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04.

11) 조연숙, 「鄉歌의 時間意識 研究」, 『고시가연구』 13,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황병익의 <만전춘별사>의 제5연에 대한 해석,¹³⁾ 엄경흠의 <청산별곡>에 대한 해석,¹⁴⁾ 임주탁의 <한림별곡>의 역사적 생성 문맥과 작품 해석,¹⁵⁾ 임주탁의 <삼장>·<사룡>의 생성문맥과 작품 해석¹⁶⁾ 등이 있다.

이연숙은 악장의 개편 기준이 음사(淫辭)와 석교(釋敎)라는 점과 <정읍사>가 궁중의 나례의식과 관련된 『악학궤범』의 ‘연화대처용무합설(鶴蓮花臺處容舞合設)’에 수록된 점에 주목하여 <정읍사>를 불교적인 측면에서 살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읍사>에 있는 “진 데”는 세상의 여러 유혹에 빠질지도 모르는 남편의 내면적인 정신세계를 포괄하는 것으로, 달은 종교적인 상징으로 인간들의 미망(迷妄)을 밝혀주는 광명한 부처의 이미지라고 해석하였다. 황병익은 <만전춘별사> 5연에 있는 어휘를 한문 문헌에 나타난 쓰임새와 그 의미를 근거로 분석하여 <만전춘별사> 제5연이 여성화자가 출중한 입과 함께 안정되고 영원하고 화려한 사랑을 누리고 싶어 하는 미래의 구상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 엄경흠은 <청산별곡>을 현재 채록 전승된 상여소리와 비교하여, 당대 장송곡(葬送曲)의 일종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전제를 토대로 제1연의 “청산”은 은둔지·이상향·저승의 의미로, 제2연의 “새”는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사자 역할로 제 2연의 사슴이 짐대에 오른다는 구절은 화자가 바다로 가기 위하여 녹자 즉 사슴뿔처럼 생긴 아디 채와 아디 줄을 잡고 배의 돛을 올리고 움직이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상의 해석은 작품의 내적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것이나, 그 해석과 관련하여 작품 외적 문맥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임주탁의 연구는 작품의 내적 해석과 외적 문맥을 함께 고려한 논의이다.

임주탁은 <한림별곡>에 있는 시어의 용례와 표기 등을 근거로 <한림별곡>은 문사(文士) 중심으로 문(文)·무(武)가 통합되고, 유(儒) 중심으로 도(道)·무(巫)가 통합되고, 화(華)·이(夷)가 통합된 세계상이 드러난다고

-
- 12) 이연숙, 「<정읍사>의 불교적 성격 연구」, 『한국문학논총』 38, 한국문학회, 2004.
 13) 황병익, 「<만전춘별사> 5연의 어휘 재고」, 『한국시가연구』 16, 한국시가학회, 2004.
 14) 엄경흠, 「경상도 상여소리와 비교를 통한 <청산별곡>의 이해」, 『한국시가연구』 16, 한국시가학회, 2004.
 15) 임주탁, 「<한림별곡>의 역사적 생성 문맥 연구」, 『강화천도 그 비운의 역사와 노래』 새문사, 2004.
 16) 임주탁, 「<三藏>·<蛇龍>의 생성 문맥과 함의」, 『한국시가연구』 16, 한국시가학회, 2004.

보았고, 이러한 작품의 특징이 대내적인 통합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그 통합력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있던 고종 38년의 역사적 문맥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임주탁은 충렬왕 대에 생성된 가악 레퍼토리인 <삼장>·<사룡>·<쌍연곡>·<태평곡>의 생성 문맥을 당대의 방대한 기록을 토대로 정치사적인 관점에서 살펴, <쌍연곡>·<태평곡>은 원종 연간 이전에 고려국에서 분리 이탈한 모든 집단을 고려국으로 재흡수하려는 노력과 관련되고, <삼장>·<사룡>은 충렬왕대 내부적 통합의 중요성이 부각됨과 관련된다고 보았다.¹⁷⁾

고려속요의 궁중 수용에 대한 논의는 김쾌덕¹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김쾌덕은 고려가 궁중에서 불사를 일으킬 정도였고 원의 막강한 권력이 있던 시기임에도 <쌍화점>에 삼장사 주지와 회회아비에 대한 풍자가 있다는 점을 들어, 조선 건국 초 건국에 도움이 되도록 고려왕이나 지배계층의 부패와 타락을 드러내는 쪽으로 고려속요의 내용이 변개된 것으로 보았다. 고려속요가 조선에 수용되는 배경에 주목하였으나, 그 기준이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한 것은 아니다.

고려 궁중에 사용된 국어시가와 한자시가의 관계에 대한 고찰은 최미정¹⁹⁾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최미정은 고려의 향악·아악에 대한 연구사를 개괄한 다음 고려 궁중악에 쓰인 국어가요와 한자시가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최미정은 유가적 악론의 원리가 가악의 모든 차원에 스며있다는 가설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제하고, 국어가요 형식의 형성에 한문학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국어가요 사이의 경쟁을 통해서도 발전한 것일 수 있고, 고려 후기에 지식인층은 한문을 더 잘 구사하되 국어를 더 세련시켰을 것이므로 민요의 기록화나 국어시가의 지향이 궁중악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그 외 이제현의 <소악부> 제작시기에 대한 임주탁²⁰⁾의 논의, 고려가요

17) 임주탁의 연구는 방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나, 필자의 역량으로 따라 읽기 곤란한 점이 있어 그 결과만을 제시한 점 양해를 구한다.

18) 김쾌덕, 「조선 건국 초 고려 속가 수용 상황과 변개」, 『한국문학논총』 38, 한국문학회, 2004.

19) 최미정, 「고려 궁중악의 국어가요와 한자시가-고려의 향악·아악에 대한 연구의 고찰」, 『대동한문학』 20, 대동한문학회, 2004.

20) 임주탁, 「이제현 소악부의 제작시기」, 『관악어문연구』 28,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2003.

의 연구시를 정리한 서수금²¹⁾의 논의, 『악학궤범(樂學軌範)』의 희곡적 성격을 고찰한 사재동²²⁾의 논의 등이 있다.

임주탁은 이제현 소악부의 제작시기에 대하여 소악부 후편에 등장하는 광충룡이란 인물과 그 행적·정풍 <탐라>요와 변풍 <탐라>요의 성격을 근거로 제작시기를 1357년과 1358년 사이로 보고, 이 시기가 이제현이 국가 질서 체계의 상징인 제례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때임을 밝혔다. 제작시기에 대한 논의는 작품 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품 해석이나 창작 동기를 밝히는 작업의 바탕이 되므로 그 연구 의의가 크다고 보인다. 사재동은 『악학궤범(樂學軌範)』에는 가창극본적 성격, 가무극본적 성격, 잡합극본적 성격, 대화극본(강창극본)적 성격 등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고려가요의 경우 제한된 자료 속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토대로 문학적 의미를 도출해야 하므로 작품 해석에 대한 명확한 논거를 찾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상의 연구에서는 그 한계를 다양하게 극복하여 기존의 작품을 새롭게 해석하려 하였다.

2.3. 약장

약장에 대한 연구에는 <월인천강지곡>의 내용적 특징을 살핀 조홍욱²³⁾과 조규익²⁴⁾의 논의가 있다.

조홍욱은 <월인천강지곡>의 내용적 특징을 중심으로 <월인천강지곡>과 <용비어천가>를 서사시의 관점에서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월인천강지곡>은 <용비어천가>와 영웅서사시의 구조라는 점은 같으나, 표기 방식이 “한글 앞세움”이고 내용 구성에서 완결된 이야기 중심이며 위기의 해소 부분에서 주인공이 위기를 직접 극복하거나 제자들을 구출한다

21) 서수금, 「고려가요 연구의 흐름에 관한 분석적 고찰」, 숭실대 석사학위논문, 2004.

22) 사재동, 「《樂學軌範》의 희곡학적 고찰」, 『어문연구』 46, 어문연구학회, 2004.

23) 조홍욱, 「<월인천강지곡>의 내용 특징 연구」, 『어문학논총』 23, 국민대, 2004.

24) 조규익, 「<월인천강지곡>의 사건전개 양상과 장르적 성격」, 『어문연구』 46, 어문연구학회, 2004.

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 차이는 <월인천강지곡>이 일반백성들을 불교에 귀의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되어 흥미성이 필요했다는 점, 성인인 석가를 대상 인물로 설정한 불교서사시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조규익은 <월인천강지곡>이 석가모니의 일대기이면서 그 장르는 선악(善惡)·정사(正邪)의 대립과 갈등이 있는 영웅서사시이고, 에피소드 차원의 시퀀스들이 사건을 구성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두 연구 모두 <월인천강지곡>의 서사시적 특징에 주목하여 <용비어천가>와의 대비 속에서 그 특징을 드러내고 있으나, 이러한 특징이 시가문학에서 지닌 의미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2.4. 시조·사설시조

시조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자료의 소개, 한·일 대중시가의 비교, 시조에 나타난 여성성의 의미에 대한 논의, 시조에 나타난 산수자연에 대한 논의, 시조의 서정성에 대한 논의, 시조의 연행과 음악에 대한 논의 등이 있다.

새로운 자료에 대한 소개는 박을수,²⁵⁾ 김선기²⁶⁾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박을수는 『한국시조대사전』의 출간 이후 새로 발굴된 시조 작품 251수를 소개하였다. 김선기는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시조집인 『낙은본 청구영언(樂隱本 靑丘永言)』에 대하여 편차와 서지적 사항을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집에 수록된 작품의 특성, 필사자·편찬자의 의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이 논의는 단순히 자료 소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새 자료가 지닌 문학사적 의미까지 객관적으로 세밀하게 밝혔고, 필사자·편찬자의 개입으로 작품의 변개가 이루어진 사례를 제시하여 이후 시조집 연구에서 편찬자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중 대중시가를 비교한 논의는 신은경,²⁷⁾ 박경주²⁸⁾에 의하여 이루어졌

25)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 보유」, 『시조학논총』 20, 한국시조학회, 2004.

26) 김선기, 「樂隱本 靑丘永言 考察」, 『어문연구』 46, 어문연구학회, 2004.

27) 신은경, 「18·19세기 한·일 시정문학 비교 : 사설시조와 셴류(川柳)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2, 한국언어학회, 2004.

28) 박경주, 「17~18세기 한국과 일본의 대중시가 비교 연구-사설시조, 잡가와 하이카이, 료카,

다. 두 연구에서는 대중시가에 사설시조뿐만 아니라 잡가를 포함하고 있으나, 사설시조를 그 중심에 두고 있다

박경주는 일본의 대중시가인 하이카이(俳諧)·교카(狂歌)·센류(川柳)와 한국의 대중시가인 사설시조·잡가를 “상층시가와 대중시가와와의 관계”라는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한국의 대중시가는 상층시가에서 파생하였으나 그 형식을 파괴하는 데서 출발하여 민요를 받아들인 반면, 일본의 대중시가는 상층시가의 형태를 이어 확대한 것으로 보았다. 신은경은 “자아인식”을 기준으로 두 나라의 대중시가를 비교하였다. 사설시조는 나와 너의 관계로 자아를 인식하는 데 비하여 센류(川柳)는 나와 그들과의 관계로 자아를 인식하여, 자아인식이란 면에서 사설시조와 센류가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두 연구는 비교의 기준이 각각 다르지만, 18~19세기 근대이행기 상층시가와 하층시가와와의 문제·근대성과 관련된 자아인식의 문제를 대중시가를 통하여 살폈고, 그러한 대중시가의 의미를 일본 대중시가와 비교하여 폭넓게 고찰하였다.

시조에 나타난 여성성에 대한 논의는 고정희,²⁹⁾ 신은경³⁰⁾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고정희는 여성에 대한 수사적 고찰이 여성화자의 목소리를 분석하는 작업에 머물러서는 특정한 역사 사회적 상황들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여성형상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다음, 사설시조의 희극적 수사 속에 나타난 여성의 욕망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여성욕망이 18세기에서 19세기로 갈수록 즉물적인 차원으로 강등되거나 왜곡된다고 보았다. 이어 고정희는 여창가곡으로 불린 시조 노랫말을 대상으로 시조에 나타난 여성성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여창가곡의 노랫말에는 19세기 시조의 복잡한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았고, 이러한 양상을 “퇴영적 낭만주의나 감상성(感傷性)”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신은경은 “여성 님에

센류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14, 한국어교육학회, 2004.

29) 고정희, 「사설시조에 나타난 여성의 수사적 상황」, 『국어교육』 114, 한국어교육학회 2004; 고정희, 「19세기 女唱歌曲과 시조의 상품화」, 『한국민족문화』 24,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4.

30) 신은경, 「조선 후기 님 담론의 특성과 의미 - 辭說時調와 雜歌를 중심으로」, 『시조학논총』 20, 한국시조학회, 2004.

대한 그리움과 연모의 정을 토로하는 남성화자의 존재"를 기준으로 사설시조와 잡가를 대비하여 여성성의 의미를 살폈다. 그 결과 남성화자가 여성님에 대한 그리움과 연모의 정을 토로하는 것이 사설시조에서 보이다가 잡가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고, 이러한 양상을 통하여 여성의 가치와 의미가 사설시조에서 보편화되고 잡가에서 극대화됨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두 연구에서 시조에 나타난 '여성성'에 주목한 것은 공통적이거나, 고정희는 수사학에 내재된 의식이나 지향성으로 '여성성'을 주목하였고, 신은경은 여성성을 기준으로 사설시조와 잡가의 장르적 특징에 주목하였다. 특히 고정희의 논의는 작품에 대한 수사적 고찰이 작품 내적 의미에만 빠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시대적·사회적 상황들과 관련하여 해석하려 한 점이 주목된다.

시조에 나타난 산수자연에 대한 논의는 분석의 범위·연구 대상의 범위 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작품의 내적 의미에 치중한 논의, 작품의 내적 의미와 작가의 문학론이나 창작 배경을 연결시킨 논의, 산수자연을 읊은 시조 전체를 대상으로 한 논의로 나눌 수 있다. 작품의 내적 의미에 치중한 논의는 김상진,³¹⁾ 남동걸,³²⁾ 손오규,³³⁾ 신연우,³⁴⁾ 유수열³⁵⁾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작품의 내적 의미와 작가의 문학론이나 창작 배경을 연결시킨 논의는 전재강,³⁶⁾ 정상균³⁷⁾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산수자연을 읊은 시조 전체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권정은³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김상진은 <고산구곡가>에 나타난 공간에 주목하여 그 공간을 주거로 인식한 곳, 순환하는 四時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곳, 인간과 인간·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사는 곳으로 보았다. 김상진은 김득연(金得研, 1555~1637)의 <산중잡곡(山中雜曲)>이 연시조일 가능성을 살폈다. <산중잡

31) 김상진, 「<고산구곡가>의 성리학적 생태인식」, 『시조학논총』 20, 한국시조학회, 2004; 김상진, 「김득연의 <산중잡곡> 제조명-연작시조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16, 한국시가학회, 2004.

32) 남동걸, 「누정의 기능에 따른 누정시조의 특성」, 『시조학논총』 20, 한국시조학회, 2004.

33) 손오규, 「<무이도가>와 <도산십이곡>의 비교 연구」, 『한국문학논총』 38, 한국문학회, 2004.

34) 신연우, 「<陶山十二曲>에의 미학적 접근」, 『고전문학연구』 25, 한국고전문학회, 2004.

35) 유수열, 「시조의 자연, 그 '말없음'의 의미론」, 『시조학논총』 20, 한국시조학회, 2004.

36) 전재강, 「김인후의 문예의식과 그 시조문학의 성격」, 『어문학』 83, 한국어문학회, 2004.

37) 정상균, 「이황의 <도산십이곡> 연구」, 『고시가연구』 14,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38) 권정은, 「자연시조의 구성공간과 지향의식」,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4.

곡> 53수를 네 항목으로 나눈 다음 각 항목마다 배치된 13수가 연시조일 수 있다고 보았다. 연시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작품을 재단한 점이 있다. 남동걸은 누정시조에 주목하여 누정의 기능을 산수자연에 대한 감상의 공간·학문수양 및 강학의 공간·사회 및 계획 등 회합의 공간·유오적(遊娛的) 주연(酒宴)의 공간으로 나눈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시조를 제시하였다. 손오규는 <무이도가>와 <도산십이곡>을 비교하여 <도산십이곡>에 나타난 공간적 특징을 살폈다. <도산십이곡>에 나타난 공간은 원림으로 수양적 성격이 강한 것임에 비하여 <무이도가>에 나타난 공간은 현실초월적 이상향으로 유람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았다. 신연우는 <도산십이곡>의 미학을 “자연을 통하여 세계의 근원적 조화와의 만남”으로 보았다. 유수열은 시조에서 자연을 상찬한 작품에 나타난 삶의 태도와 언어의 거짓됨을 역설한 작품에 나타난 삶의 태도를 살폈으나, 분석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된 것은 아니다.

전재강은 김인후의 문예의식과 그 문예의식이 시조문학에 나타난 양상을 살폈다. 김인후의 문예의식을 “전통 성리학의 범위를 넘어 음주 취락적 풍류와 탈속적 자연 몰입의 세계를 포괄하는” 도(道)를 전달하는 제도론(載道論)으로 보고 이러한 문예의식을 전제하여 그의 시조는 “인간의 티끌세상을 완전히 벗어나 자연에 몰입하고자 하는 탈속적 정서”를 드러낸 것으로 보았다. 정상균은 <도산십이곡>을 이황이 시경의 풍아의 뜻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은 것으로 보았다.

권정은은 자연을 읊은 시조 전체를 대상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언어조직의 차원·심상의 차원·지향의식 차원에서 각각의 유형에 나타난 특징을 살폈다. 자연을 “사색과 깨달음의 대상으로 보는 축”과 “삶을 영위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축”이라는 유형 분류의 기준을 제시한 다음, 네 유형의 특징을 각각 “절대적 질서에 기반한 절대적 가치중심의 璫(<도산십이곡>)”, “자연을 변화하는 물질로 간주하는 상대적 가치중심의 氣(<고산구곡가>)”, “탈속의 경지에서 조화중심의 璫(<어부가>)”, “노동하는 생활 속에 부단히 운행하는 작용중심의 氣(<농가>)”로 정리하였다.

시조의 서정성에 대한 논의는 최제남³⁹⁾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최재남은 효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시조인 이현보의 <생일가>, 이숙량(1510~1592)의 <분천강호가>, 노진(1518~1578)의 <답가> 등을 체험 미학의 정서적 인식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살폈다. 최재남은 효의 종류를 천성으로서의 효와 인륜으로서의 효로 나눈 다음, 천성으로서의 효에 바탕을 둔 작품에는 시조를 창작하고 향유하는 사람이 작품 안에서 말하는 특징이 있고, 그러한 시적 진술이 삶과 연관성을 가져 작품의 감동은 체험 미학의 정서적 인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서적 인식과 교훈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효의 정서적 감동이 의미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념적인 항목으로 재인식되어 교훈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는 교훈의 항목이 나열되어 그 문학성을 논의하기에 한계가 있는 교훈시조를 대상으로 시조의 본령에 해당하는 서정성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의가 있고, 시조의 서정과 교술의 상관성을 해명하였다는 점에 두 번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조의 가집·음악·연행에 대한 논의는 정무룡,⁴⁰⁾ 김용찬,⁴¹⁾ 이은성,⁴²⁾ 김영운,⁴³⁾ 신경숙⁴⁴⁾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시조의 음악에 대한 논의는 정무룡, 김영운, 김용찬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정무룡은 가곡의 악곡인 대엽조의 변천과 그에 따른 노랫말 배분 방식의 양상을 고찰하였다. 대엽조의 변천 양상을 ‘慢-中-數’으로 본 것은 기존논의와 다를 것이 없으나, 대엽조가 변천하더라도 “1늑와 2늑의 악절은 길이가 같”고 이러한 악절에 따라 “노랫말에도 제 1~2행은 대구적 표현”이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 특징적이다. 김영운은 가곡 연창형식의 역사적 전개

39) 최재남, 「체험시의 전통과 시조의 서정미학」, 『한국시가연구』 15, 한국시가학회, 2004.

40) 정무룡, 「대엽조의 변천에 따른 노랫말 배분 방식의 호응양상과 그 의미」, 『한민족어문학』 45, 한민족어문학회, 2004.

41) 김용찬, 「시조에 나타난 음악의 양상과 그 의미의 변주」, 『한국시가연구』 15, 한국시가학회, 2004.

42) 이은성,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 시조창 향유의 변화양상 『가요』(동양문고본)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45, 한민족어문학회, 2004.

43) 김영운, 「가곡 연창형식의 전개양상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4.

44) 신경숙, 「19세기 궁중연향 한글악장-夜宴의 <樂歌三章>을 중심으로」, 『시조학논총』 20, 한국시조학회, 2004 ; 신경숙, 「순조조 외연의 한글 악장-효명세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15, 한국시가학회, 2004.

양상을 살폈다. 1572년에서 1800년경까지는 대엽조 악곡·북전이 주로 가창되고 중대엽·삭대엽·북전이 악조별로 분화된 시기로, 19세기는 중대엽과 북전이 쇠퇴하고 삭대엽이 가곡 가창의 주류를 형성하며 소가곡(농·낙·편)과 여창가곡이 등장하며 가곡 한바탕이 형성되고 궁중에 <악가삼장>과 같은 가곡이 수용된 시기로 정리하였다. 이상이 시조의 음악과 노랫말의 상관성, 시조 음악의 시대별 양상 등에 주목한 논의였다면, 시조 노랫말에 나타난 음악과 관련된 기록에 주목한 논의도 있다. 김용찬은 시조 노랫말에 나타난 음악의 양상에 주목하여 시조 노랫말에는 음악에 대한 인식·연주의 형태와 악기의 편성·연행의 양태 등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이은성은 『가요』(동양문고본)에 수록된 노랫말을 중심으로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 시조창의 향유양상을 살폈다. 이 시기의 시조에는 애정이란 주제가 우세하고, 종장을 새로운 내용과 표현으로 바꾸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신경숙은 궁중의 야연(夜宴)에 쓰인 <악가삼장(樂歌三章)>과 1829년 거행된 진찬의식(進饌儀式)과 관련된 의례(儀軌)인 『己丑二月 睿製』에 수록된 효명세자가 지은 국문시가 7편을 근거로 가곡창 노랫말이 19세기 궁중 연향에 한글악장으로써 사용되었음을 밝혔다. 시조의 향유가 사대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19세기 궁중에까지 전파된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 외 시조 종장의 성격과 기능에 주목한 황보관,⁴⁵⁾ 시조집에 수록된 작품의 대교(對校) 교감(校勘)을 통하여 시조 작품의 원 모습을 찾을 것을 주장한 심재완,⁴⁶⁾ 시조 한역의 역사적 전개 양상을 고찰한 조혜숙,⁴⁷⁾ 권섭의 <소의호 사장(笑矣乎 四章)>에 나타난 웃음의 문학적 형상화 방식에 주목한 최규수⁴⁸⁾의 논의가 있다. 이 가운데 조혜숙과 최규수의 논의가 주목된다. 조혜숙은 시조 한역이 16세기~17세기초에는 실험적이고 단편적인 작업으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초에는 여러 작가에 의하여 일반화되는 것으로,

45) 황보관, 「시조 종장의 성격과 기능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4.

46) 심재완, 「時調 作品의 校勘 問題」, 『시조학논총』 20, 한국시조학회, 2004.

47) 조혜숙, 「시조 한역의 사적 전개양상과 그 시조사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15, 한국시가학회, 2004.

48) 최규수, 「권 섭 시조에 나타난 웃음의 문학적 형상화와 그 의미—<笑矣乎 四章>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15, 한국시가학회, 2004.

18세기 중·후반에는 국문 시가의 역할이 긍정되고 한시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한 것으로, 19세기에는 소악부 제작으로 이전의 실험적인 다양성에 대한 반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 연구는 연구자가 1988년 이민성의 시조 한역에서부터 진행해 온 시조 한역에 대한 연구를 중간 결산한 것으로 시조 한역이라는 조선후기의 두드러진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양상을 통시적으로 조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보인다. 최규수는 권섭의 <소의호 사장(笑矣乎 四章)>에 나타난 웃음의 문학적 형상화 방식을 의성적 표현의 반복적 동원, 어구 반복의 연쇄적 구성, 호칭어의 활용과 관계성 회복 등으로 지적하고, 이러한 형상화는 현실지향적인 작가의 관심사가 기반이 되는 것으로 보였다. 웃음의 형상화 방식에 대한 관심이 주로 판소리 등의 서사문학에서 거론되던 것을 고전시가 분야로 확장한 점에 의의가 있다.

시조에 대한 연구는 향가·고려가요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된 관심이 대중시가·여성성·산수자연에 집중된 면이 있다. 그 가운데 산수자연에 대한 관심은 작품에 나타난 공간에 주목한 것이 특징적이다. 하지만, 그 공간의 의미가 기존의 연구 성과보다 어느 정도 진전되었는가 하는 점에서는 의문이 든다.

2.5. 가사

가사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작품 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에 대한 소개, 개별 작품에 대한 논의, 가사의 향유방식에 대한 논의, 조선후기 가사의 구도에 대한 논의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작품의 구성 및 표현에 대한 논의, 작품의 작가의식 및 주제에 대한 논의, 작품의 창작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한 논의로 나누어지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작품·알려지지 않은 작품의 소개는 강전섭,⁴⁹⁾ 박미영,⁵⁰⁾ 박애경,⁵¹⁾

49) 강전섭, 「文參議 所作『勸勉行實歌』의 檢討 吟味」, 『어문연구』 44, 어문연구학회, 2004.

50) 박미영, 「노리척 소재 <호서가>의 구성 원리와 의미」, 『한민족어문학』 45, 한민족어문학회,

유해춘⁵²⁾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강전섭은 교훈가사 <권면행실가(勸勉行實歌)>를 소개하면서 그 작가를 문덕구(文德龜, 1667~?)로 추정하였다. 박미영은 『노 리칙』에 수록된 <호서가>를 소개하면서 그 작품에 충청도의 4목 12군 38현의 지명이 담겨 있고, 고유지명에서 한자의 뜻풀이를 사용하거나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특징이 있음을 밝혔다. 박애경은 1920년대 일본 문명 시찰단에 참여한 작가가 일본의 근대상을 그린 장편기행가사인 <동유감흥록(東遊感興錄)>을 소개하면서 그 작품에는 작가가 “친일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있음을 밝혔다. 유해춘은 1867년에 창작된 규방가사인 <기수가(淇水歌)>와 그와 관련된 8편의 가사를 중심으로 작품에 있는 시누이와 올케가 서로 주고받았던 내용을 소개하였다.

개별 작품의 구성 및 표현적 특징에 대한 논의는 여성화자가 드러난 작품 또는 애정을 주제로 하는 작품에 편중된 감이 있다. 그 논의는 김수경,⁵³⁾ 정인숙,⁵⁴⁾ 고순희,⁵⁵⁾ 박혜숙⁵⁶⁾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김수경은 과부의 슬픔을 토로한 규방가사인 <청송가>에 나타난 여성적 글쓰기의 특징을 살폈다. 이 작품에는 여성화자의 내면을 표출하기 위하여 여성화자의 경험의 드러나고, 회고와 독백이 교차되는 표현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정인숙은 이별을 주제로 한 <단장이별곡(斷腸離別曲)>과 이세보(李世輔, 1832~1895)의 <상사별곡(相思別曲)>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목소리를 살폈다. <단장이별곡>에는 남성화자의 진술이 주도적이거나

2004.

- 51) 박애경, 「장편가사 <東遊感興錄>에 나타난 식민지 근대체험과 일본」, 『한국시가연구』 16, 한국시가학회, 2004.
- 52) 유해춘, 「19세기 <기수가>에 나타난 담론의 양상과 그 기능」, 『한민족어문학』 44, 한민족어문학회, 2004.
- 53) 김수경, 「신변탄식류 규방가사 <청송가>를 통해 본 여성적 글쓰기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4.
- 54) 정인숙, 「<斷腸離別曲> 연구-시적화자의 다층적 목소리 분석을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13, 한국고시가문화회, 2004; 정인숙, 「이세보의 <相思別曲> 재론」, 『고시가연구』 14, 한국고시가문화회, 2004.
- 55) 고순희, 「<相思別曲>의 표현미학 연구」, 『고시가연구』 13, 한국고시가문화회, 2004.
- 56) 박혜숙, 「기생의 자기서사-〈기생 명선 자술가〉와 〈내 사랑 백석〉」, 『민족문학사연구』 25, 민족문학사학회, 2004.

그 목소리에 여성화자의 목소리가 보인 점을, 이세보의 <상사별곡>은 단 위텍스트의 수용 혹은 집합으로 구성되어 연군이라는 포장된 이념보다는 남녀 간의 보편적인 정감에 빠져들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시적 화자의 다층적 목소리라는 일관된 방법론으로 애정가사에 나타난 주 정적 감상성의 한계를 극복하여 그 의미를 다층적으로 해석한 점에 의의가 있다. 고순희는 십이가사(十二歌詞)의 하나인 <상사별곡(相思別曲)>의 표현미학을 살폈다. 이 작품에는 보편적 인간생활과 관련하여 우리말로 된 원형적 상징어와 병렬의 문체가 나타나고, 이와 같은 표현적 특징이 대중성을 획득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박혜숙은 <기생 명선 자술가>에 나타난 “자기서사”와 기생으로서의 정체성의 상관성을 살폈다. 이 작품에 기생의 자기서사가 나타나고 이러한 자기서사는 절개 있는 여성 또는 낭만적 사랑의 주인공으로 자기를 구축함으로써 절개·낭만적 사랑을 기억하거나 남에게 드러내면서 공적으로 인정받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 외에는 「초당문답가」의 구성에 주목하여 그 작품의 문학적 의미를 전통적 문학양식이 근대 초기의 문학양식으로 전환해 가는 실험적 모색을 실현한 점으로 파악한 조혜숙⁵⁷⁾의 논의와 채현(蔡瀾)의 <석문정구곡도가>와 <석문정가>에 나타난 시인의 모습에 주목하여 각각의 작품에 작가의 외향과 내향이라는 상반된 모습이 있음을 지적한 박이정⁵⁸⁾의 논의가 있다.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식 및 주제에 대한 연구는 이승원,⁵⁹⁾ 최상은,⁶⁰⁾ 이형대⁶¹⁾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승원은 정학유(1786~1855)의 <농가월령가>의 내용을 살펴 이 작품에 질서와 규범으로서의 자연·인간의 노동과 유희가 나타난다고 보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고 상하존비(上下尊卑)를 준수하며 환곡과 신역을 긍정하

57) 조혜숙, 「근대전환기 국문시가의 장르적 변환과 근대성-초당문답가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58) 박이정, 「蔡瀾의 가사 두 편에 대하여」, 『국문학연구』 11, 국문학회, 2004.

59) 이승원, 「<농가월령가>에 나타난 자연·인간·사회」, 『국어국문학』 137, 국어국문학회, 2004.

60) 최상은, 「정훈 가사에 나타난 가문의식과 문학적 형상」, 『한민족어문학』 45, 한민족어문학회, 2004.

61) 이형대, 「17·18세기 기행가사와 풍경의 미학」, 『민족문화연구』 4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4.

는 유교적 규범론자의 이상적인 관점을 주제로 보았다. 최상은은 정훈(鄭勳, 1563~1640)의 가사 작품 다섯 편에 나타난 주제를 살폈다. <성주증흥가>에서는 출사에 대한 열망을, <용추유영가>에서는 사족으로서의 실천적 이념과 자존심을, <수남방옹가>에서는 사족으로서의 신분에 맞는 풍류를, <탄궁가>에서는 곤궁한 현실에 대한 절박한 정서를, <우활가>에서는 삶에 대한 총체적인 탄식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형대는 17·18세기 기행가사에 “풍경”이란 개념을 적용하여 기행가사의 특징을 사적으로 살폈다. 16세기 기행가사에는 선협적 풍경, 17세기 전반에는 체협적 내면공간의 확장파 풍경의 계승, 17세기 후반에는 처사적 시선의 유형과 풍경의 분화, 18세기 후반에는 인간적인 풍경과 사실적 묘사를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보았다. 기행가사에 “풍경”이란 새로운 용어를 적용한 점은 주목되지만, 논의에 나타난 풍경의 개념이 “풍경은 직접적인 자각이며 자연과의 합일·일체화라기보다는 일종의 어울림이다”,⁶²⁾ “풍경이란 주체에 의하여 지각되고 체험된 공간이다”,⁶³⁾ “풍경은 주관적 정조가 표출되는 또는 형상화되는 장소인 것이다”⁶⁴⁾ 등으로 강호가사나 기행가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언급한景物·내면 표출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작품의 창작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한 고찰은 성무경,⁶⁵⁾ 김종진,⁶⁶⁾ 이승복,⁶⁷⁾ 김석희,⁶⁸⁾ 최현재⁶⁹⁾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성무경은 <노처녀가>의 형성 배경이 되는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살폈다. <노처녀가>는 1791년에 있었던 노총각 김희집과 노처녀 신씨의 사혼(賜婚)이라는 실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쓰였고 이옥의 <동상기> 등에 그

62) 앞의 논문, 119면.

63) 앞의 논문, 121면.

64) 앞의 논문, 122면.

65) 성무경, 「노처녀 담론의 형성과 문학양식들의 반향」, 『한국시가연구』 15, 한국시가학회, 2004.

66) 김종진, 「〈廣大募緣歌〉의 창작 배경과 문학적 특성」, 『한국시가연구』 16, 한국시가학회, 2004.

67) 이승복, 「玉局齋 李運永에 대한 傳記的 考察」, 『고전문학과 교육』 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이승복, 「〈수로조천행선곡〉의 창작 배경과 의미」, 『국어교육』 115, 한국어교육학회, 2004; 이승복, 「〈세장가〉의 구조와 의미」, 『한국민족문화』 24,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4.

68) 김석희, 「소당 김형수의 생애와 문학」, 『고전문학과 교육』 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김석희, 「〈농가월령가〉와 〈월여농가〉의 대비 고찰」, 『국어국문학』 137, 국어국문학회, 2004.

69) 최현재, 「박인로 시가의 현실적 기반과 문학적 지향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4.

이야기가 수용되는 등 노처녀 담론이 확산된 것과 관련되며, <노처녀가(2)>가 먼저 형성된 다음 <노처녀가(1)>이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서사적인 가사로 취급되어 오랜 동안 작품 내적 분석만이 이루어졌던 <노처녀가>에 대한 연구 경향에 비추어 볼 때 그 형성 배경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점은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김종진은 남호영기(1820~1872)의 <광대모연가(廣大募緣歌)>의 창작 배경과 그 의미를 살폈다. <광대모연가>는 남호영기가 1850년대 서울을 중심으로 『화엄경』 등의 경전을 판각 유포한 불서간행운동을 창작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구조상 서분·정중분·유통분이라는 경전의 구조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승복은 이운영(李運永, 1722~1794)에 대한 전기적 사실을 고찰한 다음 그 사실을 토대로 <수로조천행선곡>·<세장가>의 의미를 살폈다. <수로조천행선곡>은 그의 전기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창작 시기를 1775년경으로 추정하였고, 명나라에 수로로 조천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고 사신의 시점에서 명의 몰락에 대한 비감을 토로하며 중원의 회복이라는 앞날에 대한 소망을 표출한 작품으로 보았다. <세장가>는 기존 민요를 수용한 것으로 청자에 대한 친밀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았다. 김석희는 19세기 초중반에 살았던 여항 시인인 김형수(金洵洙)의 삶을 토대로 그의 한역 작품인 <월여농가(月餘農歌)>의 의미를 살폈다. 김형수는 중인의 신분적 제약 속에서 자신의 삶을 질곡으로 여기고 괴로워하면서, 전장을 마련하고 농촌에 정착하여 사는 것을 평생의 꿈으로 삼았고, 그의 작품 <월여농가(月餘農歌)>에 그려진 농촌이 정학유의 <농가월령가>에 비하여 몽상적 요소가 가미된 추상공간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이와 같은 차이는 김형수의 꿈과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최현재는 박인로의 삶과 그의 국문시가 작품의 의미를 살폈다. 박인로는 17세기 전반에 재지사족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고, 이러한 활동 가운데 국문시가를 매개로 현관거유들과 중유하였으며 이러한 삶과 관련해 그의 시가 작품에는 강한 출사외지·현실 비판적 태도·방축의식·안빈낙도의 태도가 드러난다고 보았다. 줄고⁷⁰⁾에서도 전라도 영암의 향촌사족인 박순우의 삶을 토대로 그의 기

70) 줄고, 「박순우의 <금강별곡>에 나타난 寫景의 의미 -<동유록>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도

행가사 작품인 <금강별곡>의 의미를 살펴본 바 있다. 이상의 연구는 가사 작품의 내적 특징을 밝히는 데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적 특징이 유발된 배경을 밝히려 한 점이 공통적이다. 이와 같은 창작 배경에 대한 연구는 작품의 내적 특징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보인다.

가사의 향유방식에 대한 고찰은 임재욱,⁷¹⁾ 정인숙,⁷²⁾ 김현식⁷³⁾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임재욱은 『육당본 청구영언』에 수록된 작품들과 전창되는 십이가사(十二歌詞)의 악곡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가사가 부분창으로 불렸을 가능성을 살폈다. 정인숙은 가사의 향유방식인 완독(玩讀)과 가창(歌唱)의 상관성을 살핀 다음 <원부사>의 이본 대비를 토대로 <원부사>도 가창가사(歌唱歌詞)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김현식은 가창으로 향유하였던 <서호별곡>과 음영으로 향유하였던 <서호사>를 대비하여 <서호별곡>에서 <서호사>로 변이된 양상과 그 양상의 의미를 살폈다. 주된 변이양상은 시상이 내면화되는 점과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거나 부연하고 있는 점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변이양상은 작가 자신만의 공간에서 내용을 음미하기 위하여 음영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가사가 조선전기에 향유되었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점은 가사 연구자의 오랜 관심거리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모습을 찾기 위한 시도로 악곡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임재욱·가사의 이본 대교로 접근한 정인숙·가창 가사작품과 음영 가사작품의 변이로 접근한 김현식의 논의는 의의가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가창가사로 거듭 논의되는 조선후기의 십이가사(十二歌詞) 등은 조선전기의 가사와는 그 장르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조선전기 가사가 향유되었던 모습은 조선전기 가사에 내재되었을 전통적인 음악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그 논의가 좀더 의미 있고,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학과 교육』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71) 임재욱, 「歌辭의 歌唱 傳統과 部分唱의 可能性」, 『한국시가연구』16, 한국시가학회, 2004.

72) 정인숙, 「<원부사> 군 가사의 전승과 향유에 관한 통시적 고찰」, 『국어국문학』136, 국어국문학회, 2004.

73) 김현식, 「<서호별곡>과 <서호사>의 변이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25, 한국고전문학회, 2004.

조선후기 가사의 구도에 대한 논의는 김학성⁷⁴⁾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김학성은 가사의 이해는 사회·문화적 실천 층위의 담론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다음, 18·19세기 시경·여항가사를 여항가요기·시경가요기·도시문화기로 나누고 작품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폈다.

그 외 이현경⁷⁵⁾은 기존에 연구된 계녀가에 대한 성과를 모아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형식을 분류하였고, 김성기⁷⁶⁾는 백광홍의 <관서별곡>이 장흥 가사문학의 시발이 된다고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현수⁷⁷⁾는 규방가사와 부요를 비교하여 우아한 어휘와 생활용어, 일인칭 화자 시점과 관찰자 시점, 운명의 순응과 운명에의 대응이라는 차이로 정리하였다. 졸고⁷⁸⁾에서는 장편의 영사가(詠史歌辭)인 <해동만고>를 대상으로 작품의 필사시기를 확정하고, 작품에 나타난 교훈성을 살폈다.

2.6. 고전시가 일반론·기타

본 절에서는 고전시가의 특정 장르에 포함시켜 정리하기에 곤란한 논의들을 다루기로 한다. 그 논의들은 고전시가 일반에 대한 것, 계몽시가에 대한 것 등이 있다.

고전시가 일반에 대한 논의는 김홍규,⁷⁹⁾ 정민,⁸⁰⁾ 김은희⁸¹⁾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김홍규는 학문적 진지함과 엄밀성을 포기하지 않고 고전시가가 독자와 교양인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위해서는 주제사적 탐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제사적 탐구와 관련된 연구 중 대표적인 것이 정

74) 김학성, 「서민가사의 담론기반과 미학적 특성」, 『대동문화연구』47,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2004.

75) 이현경, 「계녀가류 규방가사 연구 : 형식구분을 중심으로」,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2004.

76) 김성기, 「白光弘의 關西別曲과 紀行歌辭」, 『고시가연구』14, 한국고시가학회, 2004.

77) 이현수, 「閨房歌辭와 婦謠의 비교 연구」, 『고시가연구』13, 한국고시가학회, 2004.

78) 졸고, 「〈海東萬古歌〉의 필사시기와 교훈성에 대한 연구」, 『규장각』27, 서울대 규장각, 2004.

79) 김홍규, 「한국고전시가 연구와 주제사적 탐구」, 『한국시가연구』15, 한국시가학회, 2004.

80) 정민, 「새를 통해 본 고전시가의 몇 국면」, 『한국시가연구』15, 한국시가학회, 2004.

81) 김은희, 「고전시가와 페러디」, 『어문연구』12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민의 논의이다. 정민은 <황조가> · <만전춘별사> · <동동> · <유구곡> · <정과정곡>에 나타난 새를 중심으로 작품을 새롭게 해석할 가능성을 살폈다. <황조가>에서 황조(黃鳥)의 별칭이 황리유(黃鸝留) · 황율유(黃栗留) · 황유리(黃流離) 등이란 점에 주목하여 유리왕은 즉 피꼬리왕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만전춘별사>에 나타난 비오리와 관련하여 매성유(梅聖俞)의 <막타압(莫打鴨)>이란 시에 주목하여 <만전춘별사>를 “화자가 자기 자리를 새로 차지한 여인에게 왜 딴 데 가지 여기에 왔느냐고 시비를 건 작품”으로 해석하였다. 김은희는 고전시가에 나타난 패러디의 의미를 살폈다. 고전시가의 패러디는 “원텍스트의 친화관계를 통한 재문맥화”하는 양상이 우세하고, 이것은 도시의 유흥공간에서 향유되었던 연행적 측면 · 유희적 동기에 의한 텍스트의 전환과 파생이 주된 이유라고 보았다.

애국계몽기 시가에 대한 논의는 고은지,⁸²⁾ 이형대⁸³⁾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고은지는 천회당시화에 나타난 애국계몽기 시가에 대한 인식의 특질과 그 의미를 살폈다. 애국계몽기에는 전통적인 시가론과는 달리 유흥공간 및 일상의 영역에서 가창되던 대중적 양식으로까지 시가의 영역이 확장되었고, 국문시가가 우리말 노래가 아닌 우리말 시로 인식되었으며, 해방된 개체적 감정들이 애국적 열정의 표출로 집약된 것으로 보았다. 이형대는 근대계몽기 시가에 나타난 풍자의 대상과 방법을 고찰하였다. 풍자의 대상은 봉건시대의 인물형과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 및 그 조력자이고, 풍자 방법은 풍자 주체의 직접 발성에 의한 노골적인 비판의 방식, 허구적인 화자의 설정을 통한 간접 발성의 방식, 전통 장르의 변용을 통한 독자 대중의 공감을 확장시키는 방식 등이며, 이러한 풍자는 전통 장르와의 매개적 산물이라는 점과 풍자시가가 국민문학적 전망의 지평 위에서 전개되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시가사에서 보기 드물게 현실주의적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82) 고은지, 「천회당시화에 나타난 애국계몽기 시가인식의 특질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15, 한국시가학회, 2004.

83) 이형대, 「근대계몽기 시가의 풍자 대상과 방법-『대한비일신보』 소개 계몽시가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16, 한국시가학회, 2004.

3. 맺음말

2004년 1월부터 2004년 12까지 발표된 학위논문·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을 중심으로 2004년 고전시가의 연구 동향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정리과정에서 발표된 논문의 논지를 충실히 따르고 그 의의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논지를 잘못 파악한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논지의 정리는 장르별로 하였으나, 본고에서는 고전시가 전체를 조망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여 개별 장르를 아우르는 종합은 하지 못하였다. 대신 고전시가 연구의 의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느낀 짧은 생각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고전시가 연구 방향에 대하여 제언(提言)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의 창작 배경에 대한 연구의 심화가 필요한 듯하다. 개별 장르 가운데 가사에 대한 연구에서 창작 배경에 대한 연구가 언급된 바가 있다. 그리고 향가와 고려가요에 대한 연구에서도 창작 배경 또는 생성문맥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이처럼 작품의 내재적인 분석과 아울러 창작 배경이 주요한 연구과제로 제기된 것은 내재적인 분석이 작품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작품의 주제나 표현 등 작품의 내적 특징에 대한 연구도 심화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내적 특징이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징이 유발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 창작 배경에 대한 연구이다. 또한 창작 배경은 작품과 작품간의 관계 나아가 유사한 작품군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 유효하다. 창작 배경이 작품별로 축적되면 작품군의 특징에 대한 이유가 설명될 것이므로, 작품과 작품 또는 유사한 작품군이 존재하게 된 이유를 해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둘째, 개별 작품론을 넘어 통합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시조 분야에서 있었다. 이현보의 시조 작품을 통하여 시조의 서정시론을 제기한 최재남의 논의가 그 예이다. 비록 한 작가의 작품에 대한 연구이지만, 그 연구는 서정시론이라는 통합이론을 창출하는 데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가사나 시조에서 개별 작품에 대한 분석은 풍성한 편이나, 그 분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은 분석으로 도출된 결과에 대한 통합이론이 마련되었을 때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은 동일한 작품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진 향가와 고려가요에도 해당될 것이다.

KCS I

참고문헌

1. 고대가요·향가

<단행본>

강길운, 『향가신해독연구』, 한국문화사, 2004.

김창원, 『향가로 철학하기』, 보고사, 2004.

나경수, 『향가의 해부』, 민속원, 2004.

<학위논문>

권동수, 「〈三句六名〉의 의미에 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4.

김정오, 「鄉歌에 表出된 花郎道の 思惟世界」,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04.

이미진, 「고등학교 향가 교수·학습 방법 연구」,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2004.

홍비연, 「三國遺事 紀異篇의 神話 및 鄉歌 研究」, 상명대 박사학위논문, 2004.

<학술지 논문>

김성기, 「공후인의 작가에 대한 연구」, 『고시가연구』 13,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김진욱, 「〈怨歌〉의 形式에 대한 研究」, 『한국언어문학』 53, 한국언어문학회, 2004.

김창원, 「삼국유사 「감통」의 향가 읽기 : 허구적 세계의 진실」, 『국제어문』 31, 국제어문학회, 2004.

_____, 「오늘의 향가를 위한 철학적 과제 : 鄉歌能感動天地鬼神과 관련하여」, 『한국어문학연구』 43,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4.

민 찬, 「서동요 해독 및 해석의 관점」, 『한국문화』 33,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4.

박인희, 「處容의 실체와 <처용가(處容歌)>」, 『어문연구』 12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박제민, 「〈慕竹旨郎歌〉의 10구체 가능성에 대하여」, 『한국시가연구』 16, 한국시가학회, 2004.

성호경, 「〈찬기파랑가〉의 시세계」, 『국어국문학』 136, 국어국문학회, 2004.

신재홍, 「〈혜성가〉의 역사적 배경」, 『한국시가연구』 16, 한국시가학회, 2004.

_____, 「향가에 나타난 정치의 이념과 현실」, 『고전문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_____, 「향가의 사랑 주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양명학, 「처용·처용 설화·‘처용가」」, 『자유문학』 53, 자유문학, 2004.

- 양희철, 「향가 10구체설의 논거 : 제9분절의 해독 및 체계론적 해석의 변증」, 『한국시가연구』 16, 한국시가학회, 2004.
- _____, 「향찰 ‘阿也’류 해독의 변증」, 『청대학술논집』 2, 청주대 학술연구소, 2004.
- 조연숙, 「鄉歌의 時間意識 研究」, 『고시가연구』 13,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 한홍섭, 「향가와 한국의 전통음악」, 『민족문화논총』 30,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4.

2. 고려가요

<단행본>

- 김상철, 『고려시대 시가의 탐색』, 경인문화사, 2004.
- 김수경, 『고려처용가의 미학적 전승』, 보고서, 2004.
- 이영태, 『고려속요와 기녀』, 경인문화사, 2004.
- 임주탁, 『강화천도 그 비운의 역사와 노래』, 새문사, 2004.
- _____, 『고려시대 국어시가의 창작·전승 기반 연구』, 부산대 출판부, 2004.
- 조연숙, 『고려속요연구』, 국학자료원, 2004.

<학위논문>

- 김윤래, 「高麗俗謠 <靑山別曲> 研究」, 관동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서수금, 「고려가요 연구의 흐름에 관한 분석적 고찰」, 숭실대 석사학위논문, 2004.

<학술지 논문>

- 김폐덕, 「조선 건국 초 고려 속가 수용 상황과 변개」, 『한국문학논총』 38, 한국문학회, 2004.
- 박경우, 「문학적 공간과 그 분류」, 『열상고전연구』 20, 열상고전연구회, 2004.
- 사재동, 「《樂學軌範》의 회곡학적 고찰」, 『어문연구』 46, 어문연구학회, 2004.
- 손찬식, 「고전시가에 표상된 山 : 유배가사를 중심으로」, 『문학마당』 9, 문학마당, 2004.
- 엄경흠, 「정상도 상여소리와 비교를 통한 <청산별곡>의 이해」, 『한국시가연구』 16, 한국시가학회, 2004.
- 유동석, 「고려가요의 현대어 번역과 관련한 몇 문제」, 『한국민족문화』 23,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4.
- 이 북, 「고려가요 난해어구 해독을 위한 민속적 관건 : 「청산별곡」 과 「쌍화점」의 일부 어구중심으로」, 『국제어문』 30, 국제어문학회, 2004.
- 이성주, 「사회의식에서 본 <정석가>」, 『인문학연구』 7, 관동대 인문과학연구소,

2004.

이연숙, 「〈정읍사〉의 불교적 성격 연구」, 『한국문학논총』 38, 한국문학회, 2004.

임주탁, 「〈三藏〉·〈蛇籠〉의 生成 文脈과 含意」, 『한국시가연구』 16, 한국시가학회, 2004.

_____, 「〈한림별곡〉의 역사적 생성 문맥 연구」, 『강화천도 그 비운의 역사와 노래』, 새문사, 2004.

_____, 「이제현 소악부의 제작시기」, 『관악어문연구』 28,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2003.

최미정, 「고려 궁중악의 국어가요와 한자시가 : 고려의 향악·아악에 대한 연구의 고찰」, 『대동한문학』 20, 대동한문학회, 2004.

황병익, 「〈만전춘별사〉 5연의 어휘 재고」, 『한국시가연구』 16, 한국시가학회, 2004.

3. 약장

<단행본>

김명준, 『약장가사 연구』, 다운샘, 2004.

<학술지 논문>

조규익, 「〈월인천강지곡〉의 사건전개 양상과 장르적 성격」, 『어문연구』 46, 어문연구학회, 2004.

조홍욱, 「〈월인천강지곡〉의 내용 특징 연구」, 『어문학논총』 23, 국민대, 2004.

4. 시조·사설시조

<학위논문>

강신조, 「孤山作品의 교수-학습 方法 研究」,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권정은, 「자연시조의 구성공간과 지향의식」,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4.

권희경, 「효과적인 시조가창 지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2004.

김경미, 「여향육인 시조에 나타난 삶의 양상과 갈등해소 방안」,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2004.

김덕현, 「時調文學 教育 研究」, 창원대 박사학위논문, 2004.

김두환, 「李祐鐘 時調 研究」,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4.

김영덕, 「가곡의 연구 : 『가곡원류』를 중심으로」, 숭실대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영운, 「가곡 연창형식의 전개양상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4.
 김주석, 「조운 시조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4.
 김현주, 「柳善 時調 研究」,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4.
 박경희, 「사설시조에 나타난 평민의식 고찰」, 아주대 석사학위논문, 2004.
 배영조, 「徐文澤 詩歌의 研究」,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04.
 서원기, 「중등학교 시조 교육 연구」, 상명대 석사학위논문, 2004.
 송태영, 「사설시조 창작 지도방안 연구」, 이주대 석사학위논문, 2004.
 이정자, 「사설시조의 서술형식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2004.
 이혜영, 「소집단 활동을 통한 시조문학의 교수·학습」,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4.
 이희재, 「教科書에 실린 時調의 教授 方案 研究」,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04.
 정동현, 「石牛 金坡 時調 研究」,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4.
 최관식, 「사군자의 시조 수용 양상과 그 의미」, 위덕대 석사학위논문, 2004.
 최난희, 「시조 교육에 관한 연구」,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2004.
 황보관, 「시조 종장의 성격과 기능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4.

<학술지 논문>

- 간 호, 「小說受容時調의 現況과 批評的 含意: 시조에 나타난 소설수용시조의 비평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20, 동양고전학회, 2004.
 고정희, 「19세기 女唱歌曲과 시조의 상품화」, 『한국민족문화』 24,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4.
 ———, 「사설시조에 나타난 여성의 수사적 상황」, 『국어교육』 114, 한국어교육학회, 2004.
 권순희, 「'時調三章'의 새로운 이해」, 『시조학논총』 20, 한국시조학회, 2004.
 권오경, 「時調의 民謠化 攷」, 『외대논총』 28, 부산외국어대, 2004.
 김복근, 「李殷相의 獄中時調와 반일 서정가요 研究」, 『해동문학』 48, 해동문학사, 2004.
 김상진, 「<고산구곡가>의 성리학적 생태인식」, 『시조학논총』 20, 한국시조학회, 2004.
 ———, 「김득연의 <산중잡곡> 재조명: 연작시조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16, 한국시가학회, 2004.
 김선기, 「樂隱本 靑丘永言 考察」, 『어문연구』 46, 어문연구학회, 2004.
 김성면, 「李鼎輔 愛情類 辭說時調의 構造 考察: 性的 내용을 다룬 세 작품을 대상으로」, 『시조학논총』 21, 한국시조학회, 2004.
 김영철, 「開化期 辭說時調의 장르 批評的 考察」, 『어문연구』 12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 김용재, 「신흥의 생애와 시조세계」, 『인문과학논문집』 37, 대전대 인문과학연구소, 2004.
- 김용찬, 「시조에 나타난 음악의 양상과 그 의미의 변주」, 『한국시가연구』 15, 한국시가학회, 2004.
- 김주순, 「時調와 歌辭에 나타난 陶淵明 飲酒詩의 受容樣相」, 『한중인문학연구』 12, 한중인문학회, 2004.
- 김학성, 「현대시조의 좌표와 방향」, 『유심』 16,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04.
- 남동걸, 「樓亭의 機能에 따른 樓亭時調의 特性」, 『시조학논총』 20, 한국시조학회, 2004.
- 문무학, 「한국 정형시 창작 강의」, 『시조문학』 151, 시조문학사, 2004.
- 박경우, 「16세기 시조의 발전 배경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연구』 10, 한국고전연구학회, 2004.
- 박경주, 「17~18세기 한국과 일본의 대중시가 비교 연구: 사설시조 잡가와 하이카이(俳諧), 교카(狂歌), 센류(川柳)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14, 한국어교육학회, 2004.
- 박미영, 「妓女詩의 文學史的 意義」, 『진리논단』 9, 천안대 2004.
- _____, 「재미작가 흥언의 풍유가사·시조에 나타난 작가의식」, 『시조학논총』 21, 한국시조학회, 2004.
-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 보유」, 『시조학논총』 20, 한국시조학회, 2004.
- 박종익, 「구전 이야기를 통해 본 위백규의 생애 재구」, 『어문연구』 46, 어문연구학회, 2004.
- 손오규, 「<무이도가>와 <도산십이곡>의 비교 연구」, 『한국문학논총』 38, 한국문학학회, 2004.
- 신경숙, 「19세기 궁중연향 한글악장: 夜宴의 <樂歌三章> 을 중심으로」, 『시조학논총』 20, 한국시조학회, 2004.
- _____, 「순조조 외연의 한글 악장: 효명세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15, 한국시가학회, 2004.
- 신연우, 「<陶山十二曲>에의 미학적 접근」, 『고전문학연구』 25, 한국고전문학회, 2004.
- 신은경, 「18·19세기 한·일 市井文學 비교: 사설시조와 센류 川柳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2, 한국언어문학회, 2004.
- _____, 「조선 후기 ‘담’ 담론의 특성과 그 의미: 辭說時調와 雜歌를 중심으로」, 『시조학논총』 20, 한국시조학회, 2004.
- 심재완, 「時調 作品의 校勘 問題: <海東歌謠>와 <漁父四時詞>」, 『시조학논총』 20, 한국시조학회, 2004.

- 원용문, 「사설시조의 개념과 명칭 문제」, 『시조생활』 60, 2004.
- , 「사설시조의 성격 연구」, 『청람어문교육』 29, 청람어문교육학회, 2004.
- 유수열, 「시조의 자연, 그 '말없음'의 의미론」, 『시조학논총』 20, 한국시조학회, 2004.
- 유해춘, 「사설시조에 나타난 여가활동의 양상」, 『시조학논총』 21, 한국시조학회, 2004.
- 육민수, 「김득연 문학작품의 특성 : 시조 작품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17, 반교어문학회, 2004.
- 이상원, 「죽하 김익의 단가 6수와 그의 시가 향유」, 『반교어문연구』 17, 반교어문학회, 2004.
- 이은성,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 시조창 향유의 변화양상 『가요』(동양문고본)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45, 한민족어문학회, 2004.
- 이정옥, 「사설시조의 '산것들'과 그들에 대한 작가인식」, 『시조학논총』 20, 한국시조학회, 2004.
- 임종찬, 「시조의 텍스트성textuality 연구」, 『시조학논총』 21, 한국시조학회, 2004.
- 전재강, 「김인후의 문예 의식과 그 시조문학의 성격」, 『어문학』 83, 한국어문학회, 2004.
- , 「정철 시조에 나타난 현실 지향과 풍류의 성격」, 『시조학논총』 21, 한국시조학회, 2004.
- 정무룡, 「대업조의 변천에 따른 노랫말 배분 방식의 호응양상과 그 의미」, 『한민족어문학』 45, 한민족어문학회, 2004.
- 정상균, 「이황의 <도산십이곡> 연구」, 『고시가연구』 14, 한국고시가학회, 2004.
- 조해숙, 「시조 한역의 사적 전개양상과 그 시조사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15, 한국시가학회, 2004.
- 주강식, 「시조 미학과 작품의 미적 거리 연구」, 『논문집』 6, 부산교육대 교육대학원, 2004.
- 최규수, 「권섭 시조에 나타난 웃음의 문학적 형상화와 그 의미 : <笑矣乎 四章>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15, 한국시가학회, 2004.
- 최상민, 「妓流時調에 나타난 '純愛'와 '孤高'의 여성상 再考」, 『고시가연구』 13, 한국고시가학회, 2004.
- 최재남, 「체험시의 전통과 시조의 서정미학」, 『한국시가연구』 15, 한국시가학회, 2004.
- 허왕욱, 「《금옥총부金玉叢部》의 연행 교본적 성격과 가곡사적 위상」, 『청람어문교육』 29, 청람어문교육학회, 2004.

5. 가사

<단행본>

최상은, 『조선시대부가사의 미의식과 문학성』, 보고사, 2004.

<학위논문>

- 고은지, 「계몽가사의 문학적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4.
- 김동국, 「回心曲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이은미, 「규방가사의 표현특성과 여성의식 연구 : 부부이별 모티프 가사를 대상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이현경, 「계녀가류 규방가사 연구 : 형식구분을 중심으로」,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전재진, 「송강과 노계 가사의 미학적 비교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최현재, 「박인로 시가의 현실적 기반과 문학적 지향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4.

<학술지 논문>

- 강전섭, 「文參議 所作<勸勉行實歌>의 檢討 吟味」, 『어문연구』 44, 어문연구학회, 2004.
- 고순희, 「<相思別曲>의 표현미학 연구」, 『고시가연구』 13, 한국고시기문학회, 2004.
- 김석희, 「<농가월령가>와 <월여농가>의 대비 고찰」, 『국어국문학』 137, 국어국문학회, 2004.
- , 「소당 김형수의 생애와 문학」, 『고전문학과 교육』 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 김성기, 「白光弘의 關西別曲과 紀行歌辭」, 『고시가연구』 14, 한국고시기문학회, 2004.
- 김수경, 「신변탄식류 규방가사 <청승가>를 통해 본 여성적 글쓰기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 김종진, 「<廣大募緣歌>의 창작 배경과 문학적 특성」, 『한국시가연구』 16, 한국시가학회, 2004.
- 김주순, 「時調와 歌辭에 나타난 陶淵明 飲酒詩의 受容樣相」, 『한중인문학연구』 12, 한중인문학회, 2004.
- 김팔남, 「南尙教 <美人詩>의 戀情歌辭的 性格 考察」, 『어문연구』 46, 어문연구학회, 2004.

- 김학성, 「서민가사의 담론기반과 미학적 특성」, 『대동문화연구』 47,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2004.
- 김현식, 「〈서호별곡〉과 〈서호시〉의 변이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25, 한국고전문학회, 2004.
- 문영오, 「一行大師 論山歌의 解説과 管見」, 『한국어문학연구』 43,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4.
- 박미영, 「노리치 소재 〈호서가〉의 구성 원리와 의미」, 『한민족어문학』 45, 한민족어문학회, 2004.
- 박예경, 「장편가사 〈東遊感興錄〉에 나타난 식민지 근대체험과 일본」, 『한국시가연구』 16, 한국시가학회, 2004.
- 박요순, 「女流 歌辭의 現況과 研究 動向」, 『한남어문학』 28, 한남대 국어국문학회, 2004.
- 박이경, 「蔡濼의 가사 두 편에 대하여」, 『국문학연구』 11, 국문학회, 2004.
- 박혜순, 「기생의 자기서사〈기생 명선 자술가〉와〈내 사랑 백석〉」, 『민족문학사연구』 25, 민족문학사학회, 2004.
- 성무경, 「‘노치네’ 담론의 형성과 문학양식들의 반향」, 『한국시가연구』 15, 한국시가학회, 2004.
- 유연석, 「〈萬憤歌〉의 內容의 考察」, 『고시가연구』 14,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 유해춘, 「19세기 〈기수가〉에 나타난 담론의 양상과 기능」, 『한민족어문학』 44, 한민족어문학회, 2004.
- 이승원, 「〈농가월령가〉에 나타난 자연·인간·사회」, 『국어국문학』 137, 국어국문학회, 2004.
- 이승남, 「〈金剛道師道德歌〉의 종교적 의미와 문체적 특성」, 『한국어문학연구』 42,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4.
- 이승복, 「〈세장가〉의 구조와 의미」, 『한국민족문화』 24,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4.
- _____, 「〈수로조친행선곡〉의 창작 배경과 의미」, 『국어교육』 115, 한국어교육학회, 2004.
- _____, 「玉局齋 李運永에 대한 傳記의 考察」, 『고전문학과 교육』 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 이현수, 「閨房歌辭와 婦謠의 비교 연구」, 『고시가연구』 13,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 이형대, 「17·18세기 기행가사와 풍경의 미학」, 『민족문화연구』 4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4.
- 임재욱, 「歌辭의 歌唱 傳統과 部分唱의 可能性」, 『한국시가연구』 16, 한국시가학

- 회, 2004.
- 정기철, 「조선 후기 가사의 담론 기반과 특성 : 서민가사와 규방가사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2, 한국언어문학회, 2004.
- 정 민, 「岐峯 白光弘의 人間과 文學世界」, 『한국학논집』 38,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4.
- 정병현, 「신재효의 장르 인식과 서민 가사」, 『고시가연구』 13,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 정인숙, 「〈斷腸離別曲〉 研究 : 시적 화자의 다층적 목소리 분석을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13,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 _____, 「〈원부사〉 군 가사의 전승과 향유에 관한 통시적 고찰」 『국어국문학』 136, 국어국문학회, 2004.
- 정인숙, 「이세보의 〈相思別曲〉 재론」, 『고시가연구』 14,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 정한기, 「박순우의 〈金剛別曲〉에 나타난 寫景의 의미 : 〈東遊錄〉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 _____, 「〈海東萬古歌〉의 필사시기와 교혼성에 대한 연구」, 『규장각』 24, 서울대 규장각, 2004.
- 조해숙, 「근대전환기 국문시가의 장르적 변환과 근대성-초당문답가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 최상은, 「정훈 가사에 나타난 가문의식과 문학적 형상」, 『한민족어문학』 45, 한민족어문학회, 2004.
- 한석수, 「崔松雪堂의 文學世界와 現實認識 : 「諺文詞藻」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13, 한중인문학회, 2004.
- 허왕욱, 「16세기 가사문학에 나타난 여성 표현의 양상」, 『한국어문교육』 13, 한국교원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04.

6. 고전시가 일반·기타

<단행본>

- 고정희, 『고전시가와 문체의 시학-윤선도와 정철의 경우』, 월인, 2004.
- 김성기, 『韓國古典詩歌論攷』, 역락, 2004.
- 김성언, 『문학과 정치-한국고전시가의 정치론적 해석』, 동아대 출판부, 2004.
- 김영수, 『조선시가연구』, 새문사, 2004.
- 김창원, 『강호시가의 미학적 탐구』, 보고사, 2004.
- 김학성, 『한국시가의 담론과 미학』, 보고사, 2004.
- 박춘우, 『한국 이별시가의 전통』, 역락, 2004.

- 성기옥 외, 『한국시의 미학적 패러다임과 시학적 전통』 소명출판, 2004.
 성무경, 『조선후기 시가문학의 문화담론 탐색』, 보고사, 2004.
 윤인현, 『韓國 古典批評과 古典詩歌의 산책』, 역락, 2004.
 이규호, 『한국고전시가연구』, 새문사, 2004.
 이상원, 『조선시대 시가사의 구도와 시각』, 보고사, 2004.
 조기영, 『한국시가의 정신세계』, 북스힐, 2004.
 허황욱, 『고전시가교육의 이해』, 보고사, 2004.

<학위논문>

- 권영선, 「고전시가 WBI 프로그램 설계 및 구현」,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04.
 박대일, 「고전시가 학습 지도방안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04.
 양미옥, 「고전시가 교육방법 연구」, 한남대, 석사학위논문, 2004.
 이승연, 「고전시가 교육 방법론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04.

<학술지 논문>

- 고은지, 「천희당시화에 나타난 애국계몽기 시가인식의 특질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15, 한국시가학회, 2004.
 김은희, 「고전시가와 패러디」, 『어문연구』 12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김홍규, 「한국고전시가 연구와 주제사적 탐구」, 『한국시가연구』 15, 한국시가학회, 2004.
 유수열, 「꽃의 시적 표상에 대한 주제론적 접근: 고전시가교육의 방법론 모색을 곁해」, 『한국시가연구』 15, 한국시가학회, 2004.
 이형대, 「근대계몽기 시가의 풍자 대상과 방법」 『대한민일신보』 소재 계몽시가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16, 한국시가학회, 2004.
 정 민, 「새를 통해 본 고전시가의 몇 국면」, 『한국시가연구』 15, 한국시가학회, 2004.